

# 폭발하는 태양 아래 찬란한 번영과 혼란의 이중주 明察秋毫, 居安思危의 자세 필요

〈명찰추호〉

〈거안사위〉

## 2026년 국운(國運)

2026년(年)은 병오년(丙午年)이다. 물상(물상)적으로 표현할 때 광활한 대지 위를 질주하는 적마(赤馬)의 형국(形局)으로 붉은 말, 한여름의 작열하는 태양, 즉 염천(炎天)으로 본다. 이는 용광로 속에서 단련되는 무쇠, 인공지능(AI) 에이전트의 자율적 진화, 그리고 핵융합 에너지의 상용화 발전을 상징한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를 천간(天干)과 지지(地支)의 심층 분석을 통해 풀어보자.

천간(天干) 병화(丙火)는 음양오행 중 양화(陽火)이며 십간(十干) 중 세 번째다. 태양의 형상으로서 만물을 비추고 어둠 속에 숨겨진 모든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성질을 가졌다. 2025년 을사년(乙巳年)이 인고의 허물을 벗으며 싹을 틔웠다면, 2026년 병화(丙火)는 그 싹을 거대한 에너지로 광합성 시켜 폭발적으로 팽창시키는 원동력이다. '병(丙)'자는 물체가 지면 위로 번져 나가는 모양을 본뜬 글자로, 명량함과 공명정대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뜨거움이 과하면 주위를 태워버리는 파괴력을 동시에 지니기에, 2026년은 명확한 리더십과 도덕적 투명성이 요구되는 해가 될 것이다. 명리학(命理學)적으로 병화의 기운은 숨김없는 진실과 카리스마를 상징하며, 이는 지도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돼 평가받는 시대임을 시사한다.

지지(地支)의 오(午)는 십이지지 중 일곱 번째로 양기가 극에 달한 상태인 왕지(旺支)를 상징한다. 동물로는 말을 상징하는데, 이는 멈추지 않는 역동성과 야생의 생명력을 뜻한다. 오(午)는 지장간(支藏干)에 병화(丙火), 기토(己土),

九紫火運의 본격적인 위력이 발현...문명과 갈등이 공존하는 해  
미·중 기술 패권 전쟁과 지경학적 분절화가 정점에 달하는 시기

음력 1, 2월...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와 반대 세력의 정면충돌 및 정치적 재편

음력 3, 4월... AI 혁명으로 인한 경제적 도약과 증시의 화려한 불꽃

음력 5, 6월... 선거는여권 유리, 남북간 우발적 군사긴장 및 전 세계적 폭염·화재주의

음력 8, 9월... 국가적 대경사(大慶事)와 K-콘텐츠의 세계 제패, 외교적 승전보

정화(丁火)를 품고 있다. 이는 하늘의 빛(丙)이 땅의 열기(丁)로 내려와 실질적인 토양(己)에 안착하려는 형상이다. 즉, 관념적인 구상이 현실적인 결실로 치환되는 강력한 추진력의 발현이다. 절기로는 망종(芒種)과 하지(夏至)를 포함하며 만물이 성장의 정점에 이르는 시기다. 병오(丙午) 간여지동(干興支同)의 결합은 하늘과 땅이 모두 거대한 화염으로 타오르는 형국이니, 기존의 낡은 체제를 녹여버리고 새로운 가치를 제련해내는 대변혁의 용광로와 같다.

이러한 병화(丙火)와 오화(午火)가 결합하면 2026년 전 세계적 흐름과 대한민국 국운의 도면이 선명히 드러난다. 병오년은 '화(火)의 시대'인 구자화운의 에너지가 현실 세계의 물리적 질서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새로운 문명 체계를 확립하는 시기다.

세계적 국운을 살펴보면 힘의 논리와 기술 패권이 지배하는 '비대칭의 시대'가 예고된다. 2026년 세계 경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의 전망처럼 3.0~3.1%대의 '완충된 둔화'를 겪을 것이나, 그 내부에서는 극심한 양극화가 일어날 것이다. AI 기술을 선점한 국가와 기업은 '화(火)생토(土)'의 원리로 막대한 부를 쌓겠지만, 전통적 산업에 머무는 쪽은 도태되는 비정함이 공존한다. 주식시장은 반도체, 에너지, 로봇 공학 등 화(火) 기운의 섹터가 주도하며, 특히 에이전틱 AI(Agentic AI)가 실무를 대체하며 기업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일 것이다. 가상화폐 시장은 제도권의 '디지털 자산'으로 완벽히 정착하며, 태양처럼 뜨거운 투기 열풍과 제도적 안착이 동시에 일어나는 변곡점을 맞이할 것이다.

국제 정세는 트럼프의 '신(新)보호무역주의'

와 지경학적 분절화가 극에 달한다. 트럼프의 금(金) 성향 관상이 병오년의 불길과 만나 제련되니, 그는 더욱 독단적이고 실리적인 거래 외교를 펼칠 것이다. 기후 위기 또한 1.5도 임계점을 넘나들며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환경 안보'가 국가 간의 새로운 군사적 갈등 요소로 부상할 전망이다.

대한민국 국운은 위기를 불꽃 삼아 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광명(光明)의 해'가 된다. 2026년 대한민국은 글로벌 기술 공급망의 핵심 '허브'로 자리매김한다. 삼성을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은 AI 전용 칩과 차세대 메모리 시장을 석권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것이며, K-방산은 전 세계 분쟁 지역의 '표준 무기'로 채택되며 군사 강국의 위상을 확고히 할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병오의 투명한 기운 아래 구태 정치가 퇴출되고,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개혁 세력이 국정 중심에 서는 대전환이 일어난다. 이는 국민의 의식이 태양처럼 밝아져 더 이상 감언이설에 속지 않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뜻한다.

문화적으로는 'K-르네상스'가 완성된다. K-팝과 콘텐츠는 단순히 유행을 넘어 전 세계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정신적 가치를 주도하는 독보적인 문명적 지위를 얻을 것이다. 바이오와 우주항공 등 신산업에서도 대한민국은 '동양의 등불'로서 눈부신 약진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월별 국운은 다음과 같다.

음력 1월과 2월은 강력한 국정 개혁 드라이브와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부딪히며 정치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다.

3월은 새로운 정치 지형이 확립되며 민생 경제에 활기가 도는 달이다.

4월과 5월은 수출 호조와 기술 혁신 소식이 이어지며 국운이 크게 상승하는 시기다. 선거는 여권(與權)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음력 6월은 화(火)의 폭주로 인한 자연재해와 남북 간의 긴장 관계를 특히 경계해야 한다. 7월과 8월은 여름의 열기를 이겨낸 결실이 나타나며 대외 신인도가 급격히 올라간다.

9월과 10월은 국가적 대경사가 겹치며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의 주인공으로 환호받는 달이다. 11월은 과열된 분위기를 진정시키고 내실을 다지는 시기이며, 12월은 국제 금융 변동성에 대비한 치밀한 자산 설계가 필요한 달이다.

2026년 병오년(丙午年)은 대한민국이 '태양의 말'을 타고 세계를 향해 질주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다. 병오의 불길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허물을 벗고 준비한 우리에게겐 천지를 밝히는 서광(曙光)이 될 것이다. 명찰추호(明察秋毫)의 지혜로 시대를 읽고, 거안사위(居安思危)의 자세로 내실을 다지자. 태양은 스스로 빛나며



동양철학자 최인대  
(천문역원대표)

주위를 키운다. 대한민국은 이제 스스로 빛나며 세계를 이끄는 '지혜의 지도자' 국가로 거듭날 잠재력을 현실로 창조할 것이다. 위기즉변(危機卽變), 변화즉통(變化卽通)의 정신이 당신과 국가의 운명을 찬란한 승리로 이끌 핵심 열쇠다.

2026 붉은 말의 해, 병오년

#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충만하고, 즐거움과 기쁜 일을 많이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송이마을  
전남 담양군 대덕면 성곡리 31-6번지

☎ 062)222-0037 / H. 010-4323-5252